

후반 4골 몰아쳐 역전승... 광주는 강했다

‘K리그1 2R’ 강원FC에 4-2 승
교체 투입 가브리엘 멀티골 활약
후반 종료 직전 페널티킥 기회
최경록, K리그 첫 골 장식

광주에 가브리엘 바람이 분다. 광주FC가 1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강원FC와의 K리그1 2024 2라운드 경기에서 멀티골을 장식한 가브리엘의 활약으로 4-2 승리를 거두고 연승을 달렸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광주의 골대가 열렸다. 패스를 하려던 두현석이 광주 진영에서 공을 뺏겼다. 공을 잡은 강원 임민혁이 그대로 골대 앞으로 달려가 오른발 슈팅으로 광주 골망을 흔들었다.

2006년생 ‘무서운 신예’ 양민혁의 K리그 데뷔골이었다. 앞선 제주유나이티드와의 프로 데뷔전에서 도움을 올렸던 양민혁은 두 번째 경기에서는 데뷔골까지 장식했다.

실수가 발미가 돼 선제골을 내준 광주가 전반 14분에도 아쉬운 장면을 연출했다.

광주 진영에서 공을 돌리다가 공을 뺏겼고 황문기의 슈팅까지 이어졌다. 공은 골대를 벗어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후에도 광주의 수비가 흔들리면서 코너킥 상황을 허용했고, 강투지의 헤딩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공이 골대 맞고 튀면서 광주가 실점 위기를 넘겼다.

강원의 한 박자 빠른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은 광주가 전반 19분 모처럼 공세를 펼쳤다.

왼쪽에서 엄지성이 남겨준 공이 문전에 있던 이희균에게 연결됐다. 이어 골대 오른쪽에 있던 안혁주에게 공이 연결됐고,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상대 수비수가 머리로 공을 걷어냈다.

광주가 전반 25분 교체카드로 분위기를 바꿨다. ‘무기’ 안혁주를 불러들인 이정호 감독이 ‘뱅크’ 가브리엘을 그라운드로 투입했다.

박태준을 시작으로 전개된 역습, 가브리엘은 28분 몸싸움을 이겨내고 슈팅까지 날리며 분위기를 바꿨다. 이어진 공격에서 다시 한번 가브리엘이 시도한 슈팅이 상대 맞고 흘렀고, 정호연의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골키퍼 이광연에게 막혔다.

34분에도 광주 진영에서 공을 뺏겼다. 슈팅에 앞서 키퍼 김경민이 공을 잡아냈지만 전반 내내 강원 공격적인 움직임에 광주의 텀포가 흔들렸다.



광주FC의 가브리엘(가운데)이 1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강원FC와의 K리그1 2024 2라운드 경기에서 0-1로 뒤진 후반 3분 동점골을 넣은 뒤 이희균, 이건희와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5분의 전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전반 46분 오른쪽에서 이희균이 띄운 공이 포포비치를 지나 뒤에 있던 이건희에게 연결됐다. 가슴으로 공을 잡은 이건희가 오른발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공은 골대 위로 지나치면서 아쉬운 탄성이 쏟아졌다.

이정호 감독이 후반 시작과 함께 박태준을 대신 해 최경록을 투입하며 전력을 재정비했다. 그리고 후반 3분 가브리엘이 두 경기 연속 골을 성공시켰다.

이희균에 이어 엄지성에게 연결된 공. 엄지성이 왼쪽에서 반대쪽으로 공을 보냈고 가브리엘이 는

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앞선 서울과의 개막전에서 오른발로 골을 만들었던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왼발로 골을 장식했다.

후반 6분 아찔한 장면이 나왔다. 강원 프리킥 상황에서 뒤로 흐른 공을 양민혁이 슈팅으로 연결했다. 문전에 있던 가브리엘을 스텞이 골대 맞고 굴절됐고, 엄지성이 공을 쳐내면서 실점 위기를 넘겼다.

후반 11분 가브리엘이 상대 수비수 두 명을 따돌리고 왼발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공은 이광연 품에 안겼다.

후반 16분 한차례 좋은 득점 기회를 놓쳤던 이건희가 이번에는 웃었다.

정호연의 압박에 강원 이우현이 뒤로 넘긴 공이 강투지를 지나 이건희에게 연결됐다. 이건희가 침착하게 오른발로 공을 골대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리드를 가져왔다.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후반 20분 광주 포포비치가 페널티지역에서 상대를 저지하려다 페널티킥을 허용했다. 키퍼로 나선 이상현이 오른발로 광주 골망을 흔들면서 승부는 2-2 원점으로 돌아갔다.

후반 26분 이건희의 슈팅이 높게 뜨면서 아쉬움

을 삼켰지만 2분 뒤 가브리엘이 관중석을 열광시켰다. 이희균의 슈팅이 상대 맞고 흘렀고, 정호연이 공을 잡아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렸다. 문전에서 높게 뛰어오른 가브리엘이 머리로 골대를 갈랐다.

이후 두 팀은 7분의 후반 시간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다. 그리고 후반 종료로 앞두고 다시 한번 광주에 기회가 왔다. 광주 공격 상황에서 몸싸움을 하던 강원 강투지가 팔꿈치로 엄지성을 가격했다. 이후 비디오 판독 끝에 광주의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최경록이 키퍼로 나서 K리그 첫 골을 장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시작부터 홈령 평평~ 올해 기대되네

KIA, NC와 시범경기 1승1패
최형우·이우성 등 5명 홈런
내일 한화전...류현진 출격 예고

KIA 타이거즈가 시범경기 개막과 함께 ‘홈런 쇼’를 펼쳤다.

KIA가 9·10일 NC 창원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시범경기 개막 2연전을 치렀다. 9일 첫 경기에서 10-3 승리를 거뒀던 KIA는 10일에는 4-6패를 기록했다.

두 번째 경기에서 실책이 발미가 돼 역전을 허용했지만 두 경기 연속 시원한 홈런이 나오면서 팬들을 환호케 했다.

시범경기 개막전이었던 지난 9일 최형우의 솔로포를 시작으로 이우성, 소크라테스, 서건창이 연달아 담장을 넘겼다. 김호영도 우중간 펜스 상단 때리는 타구로 홈까지 들어오면서 그라운드 홈런을 장식했다.

5개의 홈런 포함 장단 12안타로 10-3 승리를 거뒀던 KIA의 홈런 행진은 10일에도 계속됐다. 이번에는 황대인이 주인공이었다.

0-0에서 시작한 2회, 나성범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1사 2루에서 황대인이 타석에 섰다. 황대인은 3구째 몸쪽 높은 직구를 잡아당겨 좌측 담장 넘기는 선제 투런포를 장식했다.

퓨처스 선수단에서 스프링캠프를 소화했던 황대인의 어필 무대는 7회에도 이어졌다. 황대인은 2-5로 뒤진 7회 무사 2루에서 좌전 2루타를 기록하면서 나홀로 3타점을 수확했다.

손가락 인대 부상으로 페이스를 조절했던 김도영도 안타 행진을 시작했다.

전날 3번 타자 겸 3루수로 나와 안타 없이 볼넷 하나만 끌라냈던 김도영은 10일에는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김도영은 NC 외국인 투수 하트를 상대로 한 1

회 첫 타석에서 1루 땅볼로 물러났지만 4회 선두타자로 나와 좌전안타를 기록했다. 후속타 불발로 득점은 올리지 못했다. 김도영은 6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2사에서 이준호를 상대로 중전안타를 만들었다.

실책은 아쉬웠다. KIA는 2-2로 맞선 4회말을 아쉬운 수비로 열었다.

김도영이 서호철의 땅볼을 잡아 1루로 송구했지만 바운드 된 공이 뒤로 빠지면서 실책이 기록됐다. 투수 활동하가 김형준의 방망이를 헛돌게 하면서 삼진으로 원아웃을 만든 뒤 김주원은 우익수 플라이로 잡고 투아웃을 채웠다. 하지만 박민우에게 우측 2루타를 허용했고, 권희동-손아섭은 연속 볼넷으로 내보냈다. 데이비스에게 적시타까지 맞으면서 NC가 2-5로 달아났다.

한편 전날 선발 이의리와 제임스 네일이 시범 경기 중에 나선 데 이어 10일에는 윤영철이 마운드에서 컨디션 점검했다.

첫 타자 박민우를 5구째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낸 윤영철은 권희동을 유격수 땅볼로 돌려세웠다. 윤영철은 2사에서 손아섭에게 중앙 펜스 상단 때리는 2루타를 허용하면서 득점권에 주자를 내보냈다. 그리고 데이비스와의 승부에서 풀가운트까지 몰렸지만 바깥쪽으로 흐르는 변화구로 방망이를 끌어내면서 헛스윙 삼진을 만들었다.

3회 선두타자 김주원을 좌익수 플라이로 잡은 윤영철은 박민우에게 8구 승부 끝에 볼넷을 내주면서 흔들렸다. 윤영철은 권희동에게 좌측 2루타를 허용하면서 1사 2-3루에 몰렸다. 손아섭의 1루 땅볼로 아웃카운트와 점수를 바꾼 윤영철은 데이비스에게 우익수 키 넘은 2루타로 동점을 허용한 뒤 2.2이닝 3피안타 1볼넷 3탈삼진 2실점으로 시범경기 첫 등판을 마무리했다.

KIA는 대전으로 이동해 한화 이글스와 시범경기 일정을 이어간다. 12일 류현진의 출격이 예고되면서 마운드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안방서 골잔치...첫 승 신고

‘K리그2’ 광양서 김포FC에 4-0...최성진, 팀 마수걸이 골

전남드래곤즈가 안방에서 골잔치를 벌이면서 시즌 첫 승을 기록했다.

이정환 감독이 이끄는 전남이 지난 9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김포FC와의 K리그2 2024 2라운드 대결에서 머리와 발로 멀티골을 기록한 김종민의 활약을 앞세워 4-0 승리를 거뒀다.

홈 개막전으로 치러진 이번 경기에서 전남 32분 최성진이 올시즌 팀 마수걸이 골의 주인공이 됐다. 여승원이 오른쪽에서 반대쪽으로 길게 공을 올렸다. 왼쪽에서 공을 잡은 김예성이 발디비아와 패스를 주고받으며 페널티지역까지 돌진했다. 상대 골키퍼 이상욱을 앞으로 끌어낸 김예성이 문전

으로 쇄도하던 최성진에게 공을 넘겼고, 최성진이 오른발로 받아 찬 공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14분에는 김종민이 골 세리머니를 했다. 후반 11분 플라카와 교체해 들어간 몬타노가 김종민의 활약을 앞세워 문전에 있던 김종민을 향해 길게 크로스를 올렸다. 높게 뛰어오른 김종민이 헤더로 골대를 가르면서 2-0을 만들었다.

몬타노는 후반 24분 직접 골까지 장식했다. 상대의 프리킥 상황에서 공이 뒤로 흐르면서 전남의 역습이 전개됐다.

김건우가 중원에서부터 집중을 시작했고, 왼쪽에

서 빠르게 달려온 몬타노에게 공을 넘겼다. 공을 몰고 페널티지역으로 진입한 몬타노가 골키퍼를 마주하고 침착하게 오른발로 슈팅을 하며 도움에 이어 득점까지 올렸다. 3-0으로 앞선 후반 44분, 김종민이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는 썬킥포를 만들었다.

이석현이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았다. 센터 서클에서 이석현이 상대 공을 뺏은 뒤 조재훈에게 공을 넘겨줬다. 이어 패스를 받은 김종민이 페널티 지역까지 진입한 뒤 왼발로 슈팅을 시도했다. 골대 오른쪽 맞은 공이 그대로 안으로 휘어져 들어가면서 전남의 4번째 골이 기록됐다.

전남은 6분의 후반 추가 시간까지 실점 없이 잘 지키면서 4-0 대승을 완성했다.

지난 2일 충북청주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0-1패를 기록했던 전남은 안방에서 뜨거운 화력을 발휘하며 본격적인 승점 사냥을 시작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강인 ‘황선홍호’ 승선할까

오늘 월드컵 2차 예선 엔트리 발표
아시아컵 논란 후 발탁 여부 관심
울산 주민규, 첫 태극마크 가능성

‘타쿠게이트’의 중심에 섰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3월 A매치에 출격할 수 있을까.

황선홍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을 소화할 태극전사 명단을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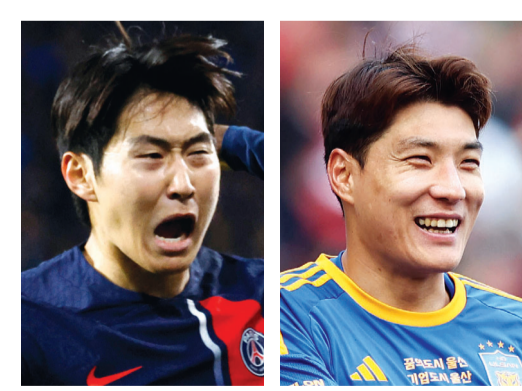
이강인의 선발 여부에 팬들의 관심은 집중된다. 이강인은 지난날 끝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하극상’을 받은 사실

이 알려져 크게 비판받았다.

이번만큼은 자숙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강인을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선수단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며, 이미 이강인은 손흥민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만큼 ‘축구’로 팀과 팬들 앞에 사죄할 기회를 주는 게 이강인에게나 한국 축구에나 좋은 선택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황 감독과 이강인은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다. 황 감독은 누구보다 이강인 활용법을 잘 안다. 이강인은 지난 6일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2차전에서 킬리안 음바페의 골을 도왔다. 타쿠게이트 이후 첫 공격포인트를 올리며 여전한 기량을 과시했다.

2021년과 2023년 K리그1 득점왕에 오를 정도



이강인 (왼쪽)과 주민규 (오른쪽)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로 출중한 결정력을 자랑하지만, 대표팀과는 인연이 없었던 주민규(울산)는 첫 태극마크를 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 보인다.

대표팀은 18일 소집돼 2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을 치른다. 이어 26일 오후 9시 30분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으로 이동해 태국을 상대로 4차전을 소화한다. /연합뉴스